

## 지자체 소식

### ■ 인천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구 합동특별점검 실시

인천시는 동절기 대비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써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러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및 연무현상 등으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점검 기간은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이며, 시·구합동 특별 점검을 9~10일 이틀간 실시한다.

점검반원은 민간 환경단체 각 1명을 포함해 8개반 24명(1조 3명)으로 구성돼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중 인터넷·집단민원 발생 공사장 ▲환경신문고(128)에 의해 민원 접수·처리된 사례가 있는 사업장 ▲주택·상가 주변 대형 공사장 등이다. 이들 대상업소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벽,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여부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 제주도, 환경행정 ISO 14001 인증취득 업무추진

제주도에서는 환경정책의 입안·집행 과정에 필요한 환경관리 시스템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행정 ISO 14001 인증을 2006. 2월 까지 취득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ISO 14001 행정경영 체제는(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국제표준화기구))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 환경관리 개선을 위하여 ISO에서 정한 환경경영체계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는 제도

이다.

ISO 14001 인증취득을 위하여 지난 11. 1일부터 (사)한국능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ISO 14001 인증취득 지도·자문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진기획팀을 구성·운영하여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행정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및 환경경영시스템 운영문서(매뉴얼, 규정, 지침서 등)를 작성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경영 매뉴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현재 추진하는 환경행정 업무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행정/현장업무에 대하여 계획수립⇒업무수행⇒업무점검 및 시정⇒정책개선 등 환경행정 업무를 환류(feed back)시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로 환경 변화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 ■ 서울시, 한강둔치 옛 정취 느끼게 복원된다

한강 시민공원에 옛날 한강변의 푸른 모습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한강변 자생수목인 느릅나무, 미루나무, 수양버들 등을 심어 자연형 하천으로 개선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하천경관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0년대초 '한강종합개발사업' 당시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治水) 위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하천변에 자라고 있던 미루나무, 갯버들, 갈대 등이 한강변 호안정비 등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한강은 생물종에 대한 부양기능이 뛰어나고 종의 다양성이 높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환경보전 기능보다는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생물서식처로서 한강의 기능은 쇠퇴되고 생물종 다양성은 격감해 푸르름과 생명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97년 이같은 문제 해결을 돕는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내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한강둔치에는 키 큰나무 4,500주, 키작은나무 등을 식재했으나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그동안 심어진 나무들에 대해 '01~'04년까지 4년간 수리분야의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모니터링을 의뢰한 결과, 나무식재에 따른 치수상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강둔치의 토양을 분석한 내용에 따라 한강변에서 잘 자라는 느릅나무, 갯버들, 수양버들 등 27종의 나무를 선정, 9월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하천수리 검정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에는 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 봄 철부터 한강 둔치에 14만주(키 큰나무 6,700주, 키작은 나무 13만3,300)주가 식재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한강변 둔치에 자생하고 있는 어린나무(수양버들 등 11종 3,500주)를 보다 철저히 보전 관리하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 식물 스스로가 살아남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서 생육한 나무로 하천변을 녹화해 자연적이고 향토적인 이미지 개선 및 수목식재에 따른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전남, '섬 지키기 종합대책' 착수

전라남도 섬의 체계적 보전과 개발을 위한 '섬 지키기 종합대책'이 수립, 착수됐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7일 교수·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섬 지키기 종합대책 수립 기획단'을 발족, 첫 회의를 갖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도서 특성과 현실에 맞는 섬의 체계적 개발방안과 무인도서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섬 지키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이 같은 추진은 도서인구가 해마다 격감하고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방치되는 섬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수립하게 된 '섬 지키기 종합대책'은 섬의 생산적 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에 중점을 둔 도서개발사업의 보다 효과적 추진방안을 담았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게 됐다. 이를 위해 현행 도서교통·전력·급수·의료 문제 등 생활인프라와 생산기반 확충 등 도서개발사업의 추진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무인도서 식생개량 방안 등 섬의 미래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서생태 및 환경보전 대책, 도서관련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등 그동안 제기된 도서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층 분석, 종합대책에 반영하게 된다.

전남도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이달 종합대책을 수립,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중앙 관련부처에 정책건의를 통해 신속한 제도개선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 대전시, 3대 하천 생태복원 본격화

과다한 도시개발에 따라 하상도로, 주차장, 복개 등으로 훼손되는 도시하천의 생태복원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대전광역시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가졌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도시하천을 지역특성과 연계해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하천관리위원회, 생태공원화 추진위원회, 생태공원화 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구간별 공간계획, 기존 하천 시설물의 복원, 하천 복원을 위한 기타 방안 등이 검토됐다. 대전시는 3대 하천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03년 도심생태하천조성을 학술 연구를 완료했고 이어 3대 하천에 대한 도심생태하천조

## 지자체 소식

성 기본설계용역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교수·전문가등의 세부적인 자문을 받았다.

3대 하천 생태복원 기본설계의 공간계획은 상위계획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대전천·유등천의 테마는 생태복원구간, 완충구간, 수변문화창출구간, 정서순화구간, 보전구간으로 설정했으며 갑천은 지난 6월부터 생물서식처를 조사중에 있다.

생태복원구간은 하도내습지, 정수식물식재, 완충녹지, 관찰데크를 완충구간에는 야생초지, 초화원, 벽천시설, 수변문화 창출구간에는 상징조형물, 수변스탠드, 다목적광장, 물놀이공간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서순화 구간에는 자연재 호안, 여울과 소, 완충녹지, 다단식 여울을 보전구간에는 자연형 통나무, 수중보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금년 12월 시민 공청회와 내년 1월 하천관리위원회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까지 공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용역이 완료되면 하천별 시범구간에 대한 노선을 선정, 내년 실시설계와 함께 본격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울산시, 인공어초 보존상태 어획효과 우수

울산 연근해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보존상태는 물론 어획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에 의뢰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울산 연근해에 설치된 인공어초 보존상태, 어획효과, 폐기물 수거, 서식생물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울산 연근해 1,034ha(동구 302, 북구 516, 울주군 216)에 설치

된 인공어초 7,368개 가운데 464ha(동구 32, 북구 336, 울주군 96)의 인공어초 3,236개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시설물 보존상태의 경우 95% 이상 양호한 상태로 보수 보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어초에 침적된 폐기물(폐그물, 폐어구 등)도 비교적 소량인 205kg 잔존 폐기물이 수거됐다. 이와 함께 어초어장의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실시한 어획시험과 부착생물상을 조사한 결과 18~33종(미더덕, 따개비 등)의 수산생물이 부착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초어장의 어획량은 인공어초 비설치 지역 대비 북구 화암, 당사해역(사각형, 강제어초) 2~4배, 동구 주전(반구형) 1.9배, 울주군 대송(사각형) 12.7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관련 자료는 종합하여 정확한 위치좌표가 표시된 어초어장도를 제작 어촌계 등에 배부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 정보화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된다.

### ■ 경북, 공공하수도자문위원 구성

경상북도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업계획 및 기술검토를 위한 관계 전문가 20명을 공공하수도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는 등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지난 10월 1일자로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돼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질환경개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하수처리장 인가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방류구 하단에 생태습지를 조성토록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설계 수질을 30~40% 강화하는 한편 처리장 부지내 주민친화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함으로써 낙동강오염총량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시·군에서는 이번 인가권 이양으로 보다 신속한 하수처리장 인가를 통해 민간자본유치 및 선진기술 접목으로 선진화된 환경설비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북도에는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시설이 33개소로 하수처리율은 59%며 오는 '08년까지 하수처리율 67%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 충북, 환경부 우수군 선정

환경부가 전국 4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분야 평가 결과 충북 음성군이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소장 강준원)는 금왕지방산업단지 및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운영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단체들보다 환경분야에서 탁월한 행정업무 추진과 노력으로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 금왕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시 단계별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2,100m<sup>3</sup>/일)를 먼저 준공하고, 추가로 2단계(1,200m<sup>3</sup>/일)를 증설, 입주지역에 따른 시설 가동을 저하나 설비의 노후화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기존(2,100m<sup>3</sup>/일)을 고도처리하고 2단계(1,200m<sup>3</sup>/일)를 증설하면서 공법선정에 있어서 우선 운전개선방식(Renovation)에 의한 검토와 시설개량방식(Retrofitting)에 의한 방안을 추진, 기존 시설의 운영방법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법

(SymBio)을 채택해 당초 예상한 소요사업비인 74억원에서 50억원으로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약 24억원의 사업비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밖에 무인자동화 설비로 운영이 간편해 연간 4천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 상황을 보더라도 계획수질보다 상당히 우수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또한 건설 중인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지조성사업 중에 있다. 현재 100% 분양으로 사전에 입주업체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종합시운전 등 원활한 시설물 설치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여타 기관보다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았다.

### ■ 강원도, 산림생태복원 우수

산림생태복원지에 대한 심사에서 강원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주최한 '제1회 전국 우수산림생태복원지 선정대회' 서 강원도는 이같이 선정돼 지난 11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상금 3백만원과 인센티브로 '06년도 산림청 산림사업(사방댐 1개소)비를 지원받았다. 강원도는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산 105림 외 172필지 복구면적 23ha에 대해 지난 '02년 10월부터 '03년 6월말까지 복구한 내역을 제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최종심사에서 광범위한 고산지대(해발 422m)의 대형 산사태(1개소 2ha)지역을 자재운반, 인부출역 등 열악한 여건을 극복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강원도는 산사태지 초기 토양안정에 필요한 녹화마대수로·줄마대공, 7급줄떼공, 씨뿌리기 등 적정공법으로 전면 녹화시켜 토사유출을 방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공법이 인정돼 전국 34개 신청지 가운데 우수지로 선정된 것이다. ◀